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3.10.20 15:37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20일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림면 운교리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공단 직원 15명이 참여해 고춧대 뽑기, 콩 수확 등에 일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최근 농촌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영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지역 농가의 영농작업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박현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힘든 농가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되기를 바란다”며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가을철 농촌 일손 돕기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